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촛대[燭臺] - 청동촛대, 광명대(光明臺)

청동촛대는 구리와 주석을 섞은 합금을 재료로 한 촛대로, 고려시대의 것이 많이 남아있다. 불교적 양식의 귀족적이면서 장엄한 느낌을 주는데, 대표적인 것이 광명대와 같은 등촉기구(燈燭器具)이다. 광명대는 초와 기름 등잔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주로 국가나 사찰의 중요한 행사에서 의식용 기구로 쓰였다. 광명대에 대해서는 중국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 1091~1153)이 기술한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광명대는 등불과 촛불을 받치는 기구이며, 아래 발이 세 개가 있다. 가운데에 기둥이 있는데, 모양이 대나무 같이 마디마디로 이어진다. (기둥) 위에 쟁반 하나가 있고 그 가운데에 작은 사발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 작은 사발 가운데에서 촛불을 밝힐 수 있다. 등불을 켜려면 구리 등잔으로 바꿔 기름을 담고 심지를 세워 작은 흰 돌로 눌러 놓고 초롱은 붉은 망사로 씌운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묘사는 현존하는 여러 광명대의 형태와도 매우 부합되는 것이다. 고려시대 광명대로서 현존하는 유물은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의 원주 법천사지(法泉寺址) 출토 무자명(戊子銘) 광명대,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경기 안성지역 출토 석가전득주명(釋迦前得珠銘) 광명대, 국립청주박물관 소장의 청주 흥덕사지 출토 광명대, 그리고 경북대학교박물관 및 경기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광명대 등 비교적 많은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더러 고려시대 이전 것으로 확인되는 촛대가 있기도 한데, 2007년 10월 경주시 인왕동에 위치한 전(傳) 인용사지(仁容寺址) 유적에서 출토된 광명대의 예가 그러하다. 인용사지 사역 내 서쪽 연못 바닥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 청동 재질에 높이 35cm 정도 되는 크기로서, 등좌(燈座)는 세 방향으로 뻗은 짧은 동물 다리 위에 둥근 원반형 받침을 마련하였고, 그 중앙에서 곧게 위로 제법 굵은 기둥이 뻗어 있다. 기둥에는 염주 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리 형태의 장식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상하 대칭되게 크기를 달리하여 끼워진 모습이며,

사진1 광명대[光明臺]// 고려시대// 윗지름 18cm, 밑지름 19.5cm, 높이 39.5cm, // 경희대학교박물관

사진2 쌍사자광명대[雙獅子光明臺]// 고려시대// 윗지름 11.9cm, 밑지름 14cm, 높이 30.8cm// 경희대학교박물관

사진3 사사자광명대[四獅子光明臺]// 고려시대// 높이 60cm// 조선총독부박물관(박물관진열품도감 제4집, 1932)

사진4 청동촛대[靑銅燭臺]// 고려시대// 높이 39cm// 조선유적유물도감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다시 그 사이에 가는 나사산(螺絲山) 모양의 장식이 있다. 기둥 위에는 가장자리가 살짝 들린 형태의 둥근 접시(승반[承盤])가 놓여있는데, 주석땜질로 기둥과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은 비교적 고식(古式)에 속하는 것으로, 삼성미술관 리움(Leeum) 소장인 금동수정감장촛대(국보 제174호)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광명대 등과 비슷한 계열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 1, 2는 경기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고려시대 광명대이다. 사진 1은 멧을 부린 세 발을 가진 정(鼎)을 받침대로 삼아 그 뚜껑에 해당하는 한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등축을 올려놓을 수 있게 비교적 넓은 승반이 연결되어 있다. 기둥의 한가운데 염주알 모양의 장식이 하나 있고 그 아래위로 나사산 형태의 꾸밈이 비교적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 화려함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사진 2는 운두가 없는 평평한 원반형 위쪽에 등이나 초를 올려놓고 쓸 수 있도록 제작된 광명대의 형태이다.

귀면(鬼面)을 한 짐승의 다리를 세 발로 한 정(鼎)의 뚜껑 위에 두 마리의 사자(獅子)가 기둥을 앞발로 떠받치고 있다. 정(鼎)의 옆면에는 구름 모양의 풍혈(風穴)을 뚫어 장식하였으며, 사자가 잡고 있는 기둥 밑 부분은 두 가지 모양의 연꽃을 새긴 받침을 장구(杖鼓) 형태로 대칭적으로 고정시켰다. 이러한 형태의 광명대는 신라시대 이래 많이 조형되었던 쌍사자 석등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자의 조각 수법이 매우 세련되고 정교하다. 비슷한 예로 사진 3의 경남 거창군 거창면 동동리(桐洞里)에서 출토된 광명대를 들 수 있다.

이 광명대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되었던 자료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진을 보면 복발형(覆鉢形) 대좌(臺座) 위에 사자가 두 마리씩, 가운데 장구 모양의 금구(金甌)를 사이에 두고 아래 위에서 마주보며 중심기둥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윗부분의 염주형 기둥을 지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복잡한 장식을 취하여 화려하면서도 조화와 안정감을 살린 것이다. 한편 사진 4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안심사지(安心寺址) 출토 촛대처럼 사신도(四神圖)의 사신을 각각 두 마리씩 머리를 마주 보게 하여 그 날렵한 곡선의 몸으로 기둥을 삼은 보다 화려한 장식의 것도 발견되는데, 실용적 목적을 가졌으면서도 예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이러한 유물들은 고려의 찬란했던 문화를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경희대학교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Leeum), 연세대학교박물관, 조선유적유물도감, 조선총독부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5 광명대[光明臺]// 고려시대// 높이 42.2cm, 지름 10.1cm// 국립중앙박물관

사진6 석가전득주명광명대[釋迦前得珠銘光明臺]// 고려시대// 윗지름 17.7cm, 밑지름 18.4cm, 높이 38cm// 연세대학교박물관

사진7 광명대[光明臺]// 고려시대// 윗지름 18cm, 밑지름 17.5cm, 높이 39.5cm// 경북대학교박물관

사진8 금동수정감장촛대[金銅 수정 감장 촛대]// 통일신라 8~10세기// 너비 28cm, 높이 36.8cm// 삼성미술관 리움(Leeum)// 국보 174호